

강한나 “귀여운 허당미, 신나게 연기…도재진 같은 순정남 종조”

tvN ‘간 떨어지는 동거’ 종영 인터뷰

구미호→인간 5년차, ‘양혜선’ 변신

“쌍방 로맨스 매력…로코 또 하고파”

“혜선을 만나 연기하면서 신나고 즐거웠어요. 강한나라는 배우에게 사랑스러움을 새롭게 발견해주셨다면 감사한 수확이죠.”

배우 강한나가 tvN 수목극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구미호와 인간의 경계에 선 인물로 허당미 가득한 사랑스러움을 뽐냈다. 주민등록상 22세이지만 사실은 747세인, 구미호에서 인간이 된 지 5년차인 ‘양혜선’으로 분한 강한나는 귀여운 모습으로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16일 화상으로 만난 강한나는 “시청자들이 혜선의 허당미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다. 생각한 이상으로 많이 사랑해주셔서 의미 있고 감사한 작품”이라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지난 15일 종영한 ‘간 떨어지는 동거’는 999살 구미호 어르신 ‘신우어’(장기용)와 쿨내나는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이혜리)이 구슬로 인해 일별결에 한집살이를 하며 펼치는 로맨틱 코미디다.

강한나는 극 중 화려한 비주얼에 반전 매력을 겸비한 전직 구미호 ‘양혜선’ 역을 연기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도도해 보이지만 천진난만하고 허당스러운 매력을 갖고 있다. 인간이

되려는 구미호 신우어와는 투닥거리면서 700년 넘게 이어져 온 길고 긴 우정이다.

그는 “혜선은 사람이 됐지만 구미호로서의 감이 남아있는, 중간 상태의 인물로 표현의 범위가 넓어져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다채로운 모습을 잘 풀어내고 싶다는 욕심에 끌렸다”며 “오랜 세월을 지낸 만큼 연륜이 있지만, 혜선이라는 순수함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혜선은 허당미도 있지만, 구미호 세계관의 신비스러움을 보는 분들에게 쉽게 풀어주는 역할도 했어요. 신빙성 있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고, 극 전개에 약간의 긴장감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죠. 이런 역할과 허당미를 오가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품 제안을 받은 후 웹툰 원작을 봤는데, 순식간에 읽혔다고 했다. “웹툰에서도 혜선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원작 인물의 매력을 잘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담감보다는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하게, 실존하는 인물로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즐겁게 임했다”고 떠올렸다.

양혜선과 실제 강한나의 싱크로율은 높았다고 했다. 그는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 중 저와 성격적으로 싱크로율이 가장 비슷했다”며 “혜선은 감정 표현에 있어 순수하고 해맑은 면이 많은데, 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저도 비슷한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특히 강한나는 극 중 사랑에 간과 쓸개 다 빠주는 순정호구남 ‘도재진’ 역의 김도완과 풋풋한 로맨스를 펼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같은데, 잘못 알아듣는 귀여운 ‘동상이몽’ 케미가 매력 포인트”라며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로맨스였기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주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도완과는 tvN 드라마 ‘스타트업’에 이어 또다시 만났다. 강한나는 “아무래도 두 번째 호흡이라 가까워지기 위한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고, 내적 친밀감을 갖고 케미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이 재진의 매력에 빠졌듯, 실제 성격도 도재진과 비슷해요. 표현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사랑스럽게 하는 배우죠. 도재진과 김도완이 만나 좋은 시너지가 났고, 도완씨의 매력이 크게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기억에 남는 로맨스 장면으로는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한 신들을 꼽았다. 13회 눈 오는 날 재진이 고백하며 혜선도 심장이 뛰는 걸 순간 자각하는 장면과 15회 키스신을 떠올렸다. 특히 15회 도재진의 집 앞 키스신은

배우 오정세가 형으로 특별출연해 웃음을 안겼다.

티격태격 케미로 웃음을 자아냈던 신우어와의 호흡도 극의 재미를 더했다. ‘FOX(여우)’를 ‘POX’로 저장해두는 등 영어나 관용어에 약하지만 자신감은 최고인 양혜선에게 신우어가 매번 지적하면서 투닥거린다.

그는 “신우어와는 초반에 서로 친구인 걸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 ‘환상의 친구’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티격태격하지만, 속으론 누구보다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케미가 잘 보여져 좋았다”며 “혜선이 우여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장기에 배우가 매번 잘 들어줘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재진과 신우어 중 실제 강한나가 끌리는 타입은 뭘까. “답이한테 자상한 신우어도 매력적이지만, 저는 확실하게 순정남인 도재진 같은 스타일을 더 선호하지 않나 싶다”며 “실제 혜선 이처럼 적극적으로 리드하지 못하는 데, 소소하게 잘 챙겨 행복하려고 한다.”

사랑할 때는 사랑만 하기도 모자란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연애한다”고 웃었다.

이번 작품으로 본격적인 로코를 선보인 강한나는 더 욕심이 난다고 했다. 그는 “제 안에 있는 사랑을 꺼내고 싶은데, 계속 짝사랑하거나 가슴 절절한 사랑을 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로 쌍방 로맨스로 귀엽고 달달하고 풋풋한 케미를 보여드리기 좋겠다”며 “이번에 양방향 로맨스의 매력을 느껴서



다음에도 로코를 또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기존에 도시적이고 도도하고 냉철한 캐릭터를 많이 해온 만큼, 변신에 대한 갈망은 있었다. 그는 “제 안에 또 다른 인물을 보여줄 부분이 있는 만큼, 항상 열망이 있었다”며 “그동안 이성적인 역할을 주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감성적이고 푹푹하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좋았다”고 웃었다.

차기작은 미정이지만, 더 좋은 연기로 시청자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다양한 장르와 인물로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배우로서의 목표예요. 어떤 작품을 만나고, 또다른 모습을 보여드릴지 고민과 동시에 설렘을 갖고 있어요. 30대도 20대처럼 후회 남지 않게 보내고 싶어요. 아직 못 보여드린 모습이 많죠. 소처럼 천천히 걸어가도 아무지 않게 잘하고 싶어요.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주세요.”



20년전, 장국영 마지막 유작 디지털로 복원 극장 개봉 예정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장국영)의 마지막 유작인 ‘이도공간’(2002)이 디지털 복원을 거쳐 20여년 만에 극장 관객과 다시 만난다.

“이도공간”은 죽은자의 혼령을 보는 여자 안과 그녀를 치료하며 점점 알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정신과 의사의 집의 이야기를 그린 심리 호러물이다.

짐은 장국영이, 안은 린자신(임가흔)이 연기했다.

국내에서 2003년 6월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전인 그해 4월 장국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장국영의 마지막 유작으로도 잘 알려졌다.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인 건물 옥상에서 서 있는 장국영의 모습이 그의 실제 죽음을 연상하게 하고, ‘짐’에 몰입하기 힘들어 우울해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죽음이 이 영화 때문이라는 원망이 나오기도 했다.

‘빈센조’ 임철수, 송중기 소속사 전속계약



배우 임철수가 드라마 ‘빈센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송중기와 한 식구가 됐다.

하이스토리 디앤씨 측은 16일 “배우 임철수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신만의 호흡으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그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배우의 행보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철수는 지난 2004년 연극 ‘갈매

기’로 데뷔해 이후 무대와 브라운관, 스크린을 오가며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해 방영된 tvN ‘사랑의 불시착’에서 ‘윤세리’(손예진)의 생명보험 담당자 ‘박수찬’ 역을 맡아 생계형 직장인의 절박함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최근에는 tvN ‘빈센조’ 속 대외안보 정보원 ‘안기석’ 역을 통해 블랙코미디 장르에 꼭 맞는 연기로 웃음을 안겼다.

또 영화 ‘양자물리학’,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비밀의 숲2’, 연극 ‘완벽한 타인’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하이스토리 디앤씨에는 송중기, 양경원, 고보결이 소속돼 있다.

뉴스

칸영화제, 달라진 韓 영화 위상…봉준호 열고 이병헌 닫아

스페인어·프랑스어·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개막 선언

제74회 칸국제영화제는 전 세계에서 달라진 한국 영화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

2019년 영화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한국어로 개막을 선포했고, 마무리로 한국 영화인이 장식했다.

영화제 측이 개막 직전에야 ‘봉준호가 칸에 돌아온다’고 깜짝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개막식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한 그는 “작년에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제가 열리지 못했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제에 한 번의 끊어짐이 있었는데, (테리 프리모 칸 집행위원장) ‘연결해 달라’는 말을 해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영화제는 잠시 멈췄지만 정류장에 형제의 영화에서 기차가 달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서 영화는, 시네마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모두를 감동케 했다.

그는 “아비에르토(Abierto), 우베르(Ouvert), 선언합니다, 오픈(Open)!”이라며 스페인어·프랑스어·영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4개 국어로 개막을

선언했다.

이병헌은 17일(현지시간) 오후 한국 배우로는 처음 칸 영화제 폐막식 무대에 올라 노르웨이 영화 ‘더 웨스트 퍼스 인 더 월드’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레나트 라인스베에게 여우주연상을 전달했다.

시상에 앞서 이병헌은 프랑스어로 루미에르 대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을 향해 인사를 건넸고, 영어로 폐막식에 오를 소감을 밝히며 유머도 선보였다.

이병헌은 “올해 영화제는 저에게 특별하다. 나의 친구들인 봉준호가 개막식에 있었고, 송강호는 심사위원이다. 또 심사위원장인 스파이크 리와는 같은 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헌의 재치 있는 발언에 2천 석이 넘는 객석에서는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고, 리 위원장은 눈과 입을 찡긍거리며 즐거워했다.

이후 이병헌은 수상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배우와 기념사진 촬영을 했고, 무대를 떠나면서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는 송강호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여유를 선보였다.



송강호는 칸 영화제 사상 첫 흑인 심사위원장인 스파이크 리 감독과 함께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이날 그는 감독상 수상자로 뮤지컬 영화 ‘아네트’를 선보인 프랑스 감독 레오 카락스를 호명했다.

영화로는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이 비경쟁 부문에, 홍상수 감독의 ‘당신 얼굴 앞에서’가 올해 신설된 칸 프리미어 섹션에 초청됐다.

홍상수 감독을 비롯한 ‘당신 얼굴 앞에서’ 팀은 불참했고, ‘비상선언’의 한재림 감독·배우 송강호·이병헌·임시안은 칸 레드카펫을 밟았다.

“그래미도 돈으로” 콜롬비아 라디오, BTS 비하 논란

인종차별 발언 등

콜롬비아 한 라디오 방송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콜롬비아 ‘라 메가(La Mega)’ 라디오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를 소개했다.

당시 진행자들은 “이 곡 신창한

것도 한국 대사관에서 한 거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서 다 좋아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미도, 중요한 시상식에도 다 돈으로 들어가는 거다. 스폰서가 있다”, “이 치노(중국인들) 너무 빨라” 등의 비하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황의가 이어지자 ‘LA MEGA’ 진행자들은 사과하겠다는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분

장을 하고 나오기도 했다.

또한 욕일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한국계 아르헨티나 유튜버 ‘릴리 언니’는 “아티스트 명예 훼손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치노(중국인)라는 발언은 상황에 무어라 볼 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장민호·이민혁 코로나19 확진

가요계 다시 경계령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장민호와 그룹 ‘비투비’의 이민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가요계에 다시 코로나19 경계령이 나오고 있다.

17일 각 소속사에 따르면 장민호와 이민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장민호와 이민혁은 기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장민호는 최근 TV조선 ‘뽕송아학당’에 출연한 수영선수 박태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속성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정밀 검사를 다시 진행했고 코로나19 확진 결과가 나왔다.

장민호는 현재 TV조선 ‘뽕송아 학당’은 물론 ‘신정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폴센타’, ‘내팔하자’, ‘골프왕’ 등에 출연하고 있어, 방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뽕송아 학당’에 함께 출연하는 ‘미스터트롯’ TOP6 중 장민호를 제외한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등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상황을 지켜보며 TOP6 멤버 모두 현재 자체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다.

‘비투비’의 이민혁도 보컬 선생님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민혁은 지난 14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후인 16일 기침 및 발열 증상을 보이면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